

학생중심 미래교육 기반 조성 위해 쉼 없이

서 거석 교육감은 5일 전북도 교육청 2층 강당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 두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본보는 서거석 교육감의 취임 100일을 맞아 소회를 들어본다.

Q. 교육감님, 취임 100일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북교육을 바꾸고 살려내라'는 전북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전북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통과 협치의 전북교육, 실력과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 100일간 전북의 많은 학교와 기관을 방문하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셨을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은 것이 있으십니까?

- 합열여고 학생에게 손 편지를 받은 것이 기억에 납니다. 핑크색 편지지 3장을 빼곡하게 채운 손 편지를 읽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편지에는 합열여고의 다양한 활동들이 소개돼 있었고, 교육감인 저를 초대해 이러한 활동을 공유하고 응원받고 싶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학생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8일 합열여고를 찾아왔습니다.

Q. 전북대 총장으로 8년, 대학교수로 38년을 재직하셨는데 이런 경력을 뒤로하고 유·초·중등교육 수장인 교육감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전북의 인구는 전국 대비 3.4%지만 전북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0.9%에 불과합니다. 한 마디로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인재 아이들의 실력마저 전국 최하위권으로 뒤처지고 전북교육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어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전북교육이 제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아이들과 전북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Q. '학생중심 미래교육' 슬로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저는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중심'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유익한 정책인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교육'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미래의 가치와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입니다. 학생 행복·행명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하나의 길이 아니라 천 명의 학생에게 천 개의 길을 열어주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Q. 최근 교육계 화두는 '미래교육'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미래교육'은 무엇인가요?

- '미래교육'은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한 토대 위에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미래역량은 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 자기주도성입니다.

'미래교육'은 교실혁명을 통해 실현됩니다. 교실혁명의 핵심은 수업혁신이고, 이를 위해 교사 전문성 신장이 필요합니다.

생애주기별 교사 연수, 교과연구회, 수업동아리 등을 확대 지원하고, 수업 나눔을 활성화해 학생 맞춤형 수업, 창의·융합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에듀테크를 수단으로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혁신학교와 미래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미래학교는 혁신에 미래를 더한 학교입니다. '수업혁신, 학교자치, 민주적 학교문화조성' 등 혁신학교의 가치는 이어갑니다. 나아가 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의 탄탄한 토대 위에서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학생이 배우는 주제, 삶의 주제로 성장하도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혁신학교 조례에 따라 10월 초 혁신 혁신+학교(전북미래학교)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후 혁신학교, 혁신+학교는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전환·운영됩니다. 혁신+학교는 지역 기반 교육과정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과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 운영시계가 미래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배우는 주제가 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공동체적 삶, 지속가능한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학교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Q.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중점 추진할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기초학력은 살아가는 힘이므로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초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2학년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실시하고, 다양한 진단도구를 제공해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현재보다 더 나아져야

미래교육, 기초학력 탄탄히 한 토대 위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역량 길러주는 것

피해교원 중심 보호 강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할 것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도 대응할 것

파악해 맞춤형 학습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합니다. 2학기부터 '기초학력전담교사'를 100여 명으로 확대해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의 기초를 다지는 초등학교 2학년은 '집중지도학년제'로 운영합니다.

지역교육지원청에는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수업·평가지원단을 두고 학교별, 학생별 맞춤형 학력 지원을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공간을 확보했고 인력 배치와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취임 후 서울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유학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지난 8월 31일 우리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전북도청, 재경전북도민회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의 농촌유학은 자연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힘을 길러주는 학생중심의 교육입니다.

10월 1일부터 서울에서 27명의 학생들이 진안 조림초 입실 자사초 등 6개 학교로 전학을 와 농촌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학생들에게는 농촌유학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농촌지역 학생들은 또래 관계 형성, 협력학습 등을 통해 사회, 문화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입니다.

Q. 12년 만에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 현재 교원인사를 비롯해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에 이르기까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제도 개편은 공정한 인사를 통해 교육공

공무원의 인사 만족도를 높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배치해 전북교육 정책 추진에 힘을 실기 위함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원인사제도 개선 TP에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원단체 및 교사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승진과 진보 관련한 1차 기초 설문조사와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2차 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최종 개선안을 확정합니다. 대규모 학교 근무 기회현상, 담임가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Q. 조직개편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을까요?

-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2국체제를 3국체제로 전환합니다.

또한 기능중심의 조직을 대상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교교육과를 유초중특수교육과·중등교육과로 분리하고, 사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사학팀을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환경적 변화와 정부 정책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 노사, 그린 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등 전담부서를 신설합니다.

Q. 교권강화 여부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북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보호는 최근 교육현장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입니다.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학생지도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미 지난 9월 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를 위해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활동 보호방안으로 전북도교육청의 방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교원의 피해비용 보장과 법률상당 지원 확대가 이뤄질 것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며,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는 무엇인가요?

-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일시적으로 기금화하고 있지만 향후 40년 이상 된 수많은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 예산은 유·초·중·고 예산에서 빼갈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만들어 해결해야 합니다.

Q. 최근 (가칭)등부산악원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향후 특수학교 설립 등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 (가칭)등부산악원 특수학교는 장수군 계북면 일촌초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주변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교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최근 부지 확보에 성공하면서 예정대로 2022년 설계 공모, 2023년시 설공사를 거쳐 2025년 3월 총 10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Q.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주시 중학교 2곳을 폐교해야 하는데,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 에코·민성지구 학교 신축을 위한 전주시 중학교 2개교 적정규모화 조건부 승인은 당초 2020년 3월까지가 시한이었다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유예 기간 연장이 이뤄졌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서야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학교를 폐교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주체, 지역주민, 동창회 등의 반발이나 상실감에 앞서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때문에 학생 중심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폐교가 아닌 초·중통합운영학교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 부지내 위치한 초·중학교 중 학생수를 기준으로 2개교를 선정해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통합운영학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통합운영학교로 전환되면 교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교장 1명에 초·중, 중등 교관이 배치됩니다.

Q. 교육감님의 공약 중 '글로벌 학생해외연수' 추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큼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요?

-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 실력은 물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달 17일 직업계고 학생 30여 명이 호주와 독일로 글로벌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글로벌 현장학습이 3년 만에 재가동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일단 1,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해외연수를 진행합니다. 해외체험학습, 국외단체체험학습, 학생중심 평화교육 교류, 해외인턴십 등으로 시행되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전북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 저는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경청과 소통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자 합니다. 교육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소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조지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권력이나 권한이 아닌 섬김의 리더십과 헌신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전북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소통 변화와 혁신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전북교육이 잘돼서 너무 기쁘다. 전북교육에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은성 기자)